

‘채상병 특검법’ 오늘 재표결...가결 여부 ‘촉각’

여야, 본회의 앞두고 극한 대치 국힘, 낙선·낙천자 설득 ‘집안단속’ 야권, ‘격노설·탄핵’ 거론 찬성 압박 전원 참석시 이탈표 17표면 통과

정국 최대 뇌관으로 자리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28일 예정된 가운데, 법안 가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는 27일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VIP 격노설’을 집중 부각하고 탄핵을 거론하며 마지막까지 찬성 표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며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정국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을 통해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건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을 하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에 대한 미진한 수사나 오류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대통령이 스스로 특검에 대비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여야 민생 현안이 있는데, 특검 법안을 강행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날도 이탈표(찬성표) ‘17표’ 단속에 공력을 쏟았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다. 295명 의원(윤관석 의원 제외) 전원이 참석한다면,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 가능하다. 현재 당내에선 최재형·안철수·유이동·김웅 의원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당내 낙선·낙천·불출마한 의원은 58명인데,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여서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다. 당 지도부는 낙선·낙천자들을 접촉하면서 본회의 참석과 부결을 요청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여당의 표 단속은 수사 방해라며 여당 의원이 특검법에 찬성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의에서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 표 단속에 나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탈막’이라고 날을 세웠다.

수사 외압의 핵심쟁점으로 꼽히는 ‘VIP 격노설’을 놓고도 여당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겨냥해,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무슨 문제냐는 궤변을 늘어놓던데 참 기가막히다. 대통령 격노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2대 국회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채상병 사건 1년을 앞두고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이 지난다”며 ‘공수처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혁신당은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건이 완성된다고 압박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제5차 당선자 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특검법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를 조인한다”며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이미 결정적인 탄핵 사유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회의 부결은 사실상 탄핵 요건을 완성하는 마침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탄핵 열차의 연료를 채웠다. 여당 의원의 특검법 재의결 부결은 (탄핵) 열차의 출발 단추를 누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선대 축제 조선대 대동제 그라시아 개막식이 27일 교내 대운동장에서 열린 가운데 재학생과 시민들이 걸그룹 뉴진스 등의 공연을 보기 위해 줄지어 입장하고 있다. 그라시아는 싸이, 불빨간사춘기 등 유명 가수들의 공연과 함께 오는 29일까지 펼쳐질 예정이다. 나건호 기자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열린다

29일~6월2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유명인사 기조강연·미래교실 등

미래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가 29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 엑스포홀에서 개막식을 갖고 5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이번 박람회는 전남도교육청이 교육부, 전남도, 경북도교육청과 공동 주최하며,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6월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린다.

1년 3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 개막하는 박람회에는 △미래교육 콘퍼런스 △글로벌 미래교실 △미래교육 전시 △문화예술 교류 △미래교육축제 등 5개 섹션 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전남 교사 400여명이 개발해 공개하는 2030년 미래수업 모델부터 해외 22개국, 세계적 석학들과 고민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성, 각국의 특색있는 교육과정까지 미래교육의 실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개막날인 29일에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기조강연, 개막 특별공연 ‘에듀드림 K-POP 콘서트’, 해군교육사령부의 국악대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이후 일자 별로 전시·콘퍼런스가 알차게 전개될 전망이다.

개막식에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을 비롯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16개 시도 교육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 내외빈과 학생 및 학부모 등 900여명이 참석해 지역을 넘어 세계

로 향하는 ‘K-에듀’의 시작에 함께한다.

개막식에서는 박람회 대주제를 오프닝 영상으로 막을 연 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인사말,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환영사가 진행되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글로벌 교육, 전남교육이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박람회 개최 의의와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참관객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박람회 기간 국내외 석학, 22개 각국의 교육기관, 글로벌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이 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 김혜인 기자

화순팜 LINE-UP

베스트 선물은 다 모였습니다! 뽐뽐한 라인업

250
품목

화순팜 www.hwansunfarm.go.kr

굴비세트

미니 파프리카

대추방울토마토

발효소곰

적벽한우

화순팜

화순군 청정 먹거리 대표 소항품